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11월 9일 (제76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진실(眞實)

100+1=101이요, 100-1=99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는 수학적인 계산이다. 그러나 사업에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서 다른 계산 방법이 있다. '100+1=∞ (무한대)요, 100-1=0'이다. 이는 백 가지 물건을 잘 만들다가 한 번 불량품이 나오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0, 곧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고, 100가지에서 새로운 1이 플러스 되면 이것 역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무한대로 팔려나가 급성장하여 대기업이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1'이 무엇일까? 그것은 진실이다. 진실은 거짓이 없는 것이며, 순수하고 바른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진실은 도덕의 핵심이다.

음식점을 차렸다고 하자. 분위기도 좋고, 음식 맛도 좋다. 그런데 진실이 없다면? 즉 국산재료가 아니면 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표기했다면 장담하건대 그 음식점은 곧 모든 것을 잃어 0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사회고위층인 한 사람이 혼외아들에 대해 진실하지 못한 이유로 모든 것을 잃었다. 나도 진실하지 못해서 목회 9개월 만에 교회가 깨졌었다. 목사라고 예외였는가. 2005년으로 기억한다. 세계목회자여성세미나에서 나는 각국에서 모인 목회자들에게 거짓을 이 기도원에 다 묻고 가라고 했다. 그 때 많은 자들이 눈물로 회개했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을 보면 100+1=∞요, 100-1=0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말 진실하게 교회를 이끈 자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목회를 크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목회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나는 목도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 행사가 다 진실하기 때문이다(시33:4). 그래서 나는 세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당당히 전하는 것이다.

진실(眞實), 이는 참 아름다운 웃이며, 가치 있는 웃이다. 진실의 웃을 입으면 금세와 내세에서 ∞의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평화의 열쇠는 대화뿐이다

우리는 2013년 4월,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부천체육관집회, 같은 해 10월,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잠실실내체육관집회, 올해 추석날인 9월 8일,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시청광장에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가졌다. 그리고 11월 4일 평화통일 대구성회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가졌다.

이 날 총회장 목사님은 먼저 천국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대구실내체육관을 찾은 자들에게 주

컨드리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감정을 건드리니까 대화를 못하는 겁니다. 북한이 막무가내이지만 대화를 하려면 최소한의 존엄성은 지켜줘야 합니다. 자존심이 다치지 않게 해야 대화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대화의 물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의 남남감정도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서로 자기감정을 조절하여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한다면 얼마든

리를 잡아오라고 하니까 한 엄마는 파리채로 파리를 잡아 죽은 파리만 비닐봉투에 담아 보냈고, 다른 엄마는 비닐에 썩은 생선을 넣고 파리를 유인하여 살아있는 파리를 담아 보냈습니다. 깊이 생각해볼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도 한 방편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방축이 새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을 모



평화통일 대구성회(2014년 11월 4일 대구실내체육관)

시는 최고의 보너스였다.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다음의 길을 가르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최대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여 이날 이시대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땅에 평화통일을 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멘트에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 목사님은 '평화의 열쇠는 대화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성공한 사람은 사람 마음을 읽습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됩니다. 대화만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대화를 못하는 줄 압니까? 상대의 감정을

지 대화가 될 것입니다. 남북갈등으로도 힘든데 내부에서까지 서로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 12:25)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끼리 다투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다투는 것, 노사대립 모두 공멸을 자초하는 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유를 가지고 통 큰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낚시꾼이 같은 장소에서 붕어 낚시를 하는데 한 사람은 지렁이를, 한 사람은 떡밥을 쫓습니다. 그런데 지렁이 낚시꾼이 많이 잡았습니다. 왜요? 붕어는 지렁이를 좋아하니까요. 학교에서 파

색해야 함은 물론,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 17:14). 독이 터지기 전에 상대의 속내를 알아보십시오. 악은 악으로? No. 이에는 이, 눈에는 눈? No. 무기는 무기로? 역시 아닙니다. 피는 피를 불러울 뿐입니다. 사랑과 이해, 관용이야말로 평화를 낳는 지름길입니다."

사실 이번 성회는 총회장 목사님께서 집회 중 가장 힘든 집회였다고 토로하실 정도로 난항의 계속이었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거두었다. 이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평화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추계 산상집회

11월 10일(월) ~ 13일(목)
문의: 1600-0688, 061-392-0633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3:1~13)



사람과 씨앗은 골라 쓰는 것이다

성공한 농사꾼은 씨앗부터 고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사람부터 고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의 제자들을 고르셨습니다. 그냥 고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신 후 심사숙고하셔서 12제자를 고르셨습니다(눅6:12). 하나님도 마음이 맞는 다윗을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그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행13:22~23).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차별과 구분은 다른 겁니다.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람을 모았는데, 그 때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만 2천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삿7:1~8). 하나님은 그들도 많다 하였고, 물을 손으로 빨아먹는 3백 명만을 차출, 그들을 전쟁에 투입시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싸울 군사를 고르신 것뿐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대소사의 일들을 다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썩일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사람을 택해 역할분담을 시키라고 지적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력을 갖춘 자를 골라 역할을 나누니 모세는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출18:14~27).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인정ियो 사정ियो 학연ियो 지연 때문에 사람을 잘못 썼다가 고생하고 손해 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아니 하나님도 사람을 골라

신중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사과가 작아도 맛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 속이 제대로 익은 자를 택해야 합니다.

사울을 왕위에서 폐하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도 용모와 신장이 뛰어났는데 그에 버금가게 잘 생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

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는 중 심

을 보 느 나라”(삼

상16:7). 결국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가장 어린 막내 다윗을 택하사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외면적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생이 있는가 하면, 과부에,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그들의 외모, 즉 외적인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보셨기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생각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코드가 맞는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동업자든 배우자든 동지든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 가야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최우선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신앙적인 면입니다. 신앙이 같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같이 말며”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겪어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불신자와의 동업이나 결혼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념을 산이 높다는 것을요. 다행히 불신자를 전도하거나 자기 신앙을 지키면 다행이지만, 불신자 쪽으로 기울어 나중에는 믿음마저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믿지 않은 자와 명예를 같이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취한 천여 명의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종교개혁까지 단행하던 유대 4대 왕인 여호사밧은 나라가 견고해 지자 지속 적으로 나라 가

강 성 하 기 위한 방법의 일 환으로 그의 아들들을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또한 정략결혼을 고리로 아합과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그는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는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다 아합은 전사하고, 자신은 겨우 목숨만 건지는 사태에 이르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대하19:2).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매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공동으로 배를 만들어 다시스에서 오빌의 금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그 배가 파선되고 맙니다. 왜요? 그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대하20:37).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재주가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면 버려야 합니다. 바로가 애굽을 최대강국이요 최대부국으로 만든 것은 요셉을 잘 골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대단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을 선택한 느브갓네살도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아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과 동업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을 골라 쓰고 있습니까? 잘못 뽑았다 생각하거든 과감히 잘라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여기에 응용하십시오. 눈이 실족했으면 눈을 빼고, 발이 실족하면 발을 자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씀처럼, 눈 같은 자, 발 같은 자라도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이결랑 잘라내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48절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할 때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도 오늘의 말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쓸 만한 사람을 골라 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같은 씨지만 환경이나 기후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도 환경이 맞아야 열매가 맺듯 사람도 서로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맞고, 바울과 실라가 맞은 것처럼 말입니다(행15:37~41).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요, 흥하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골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분별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과일이큰것보다 맛있는것을택하라

쓰셨는데, 왜 아무나 감정대로 사람을 쓰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택해야 할까요? 먼저는 내면을 봐야 합니다. 정직함이 있는지, 진실한지를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택합니다. 학벌이 좋으면, 배경이 좋으면, 인물이 잘났으면 혹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도끼에 자기 발을 찍습니다. 저도 그랬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목회 초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S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하는 자들로 성가대를 만들고, 좀 난다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9개월 만에 교회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사람을 택할 때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작심삼일 후가 더 중요

한 여대생은 취업을 앞두고 작년에 구입한 정장이 더 이상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크게 낙심했다. 여대생은 당장에 살을 빼기로 결심하고 6개월 안에 5kg를 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후 굶기와 운동하기를 반복하며 3개월을 보냈지만 몸무게는 전혀 줄지가 않았다. 조금해진 여학생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환경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는 집 안에 있는 밥그릇과 반찬그릇, 심지어 물 컵까지 사이드를 절반으로 줄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 여대생과 같이 핵심 포인트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게으름이나 의지부족을 탓하기 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갖춰야 한다. 다이어트를 위해 모든 그릇과 컵을 절반 크기로 줄인 것처럼, 상황을 재설계하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성공한 뒤에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감소한 체중을 유지하는 일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3~6개월 사이에 성공적으로 감량한 체중이 1~2년이 지나면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한다. 1년이 지나도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은 20% 미만이라고 하니 보통 어려운 노력이 아니다. 그 이유는 몸이 새로운 식습관에 적응하는 기간 때문이다. 보통 2년 정도가 걸리는 이 기

간 동안 몸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혹독한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적으로 체중을 유지하려면 스스로 체중을 확인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계속해서 체중을 조절하고 싶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몸무게를 재봐야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식습관을 바꾸거나 운동 시간을 늘리는 등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를 통하여 체중 유지하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 혹은 하나님의 감동을 끊임없이 받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규칙적인 자기 점검인 것처럼 매일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고 뒤로 쳐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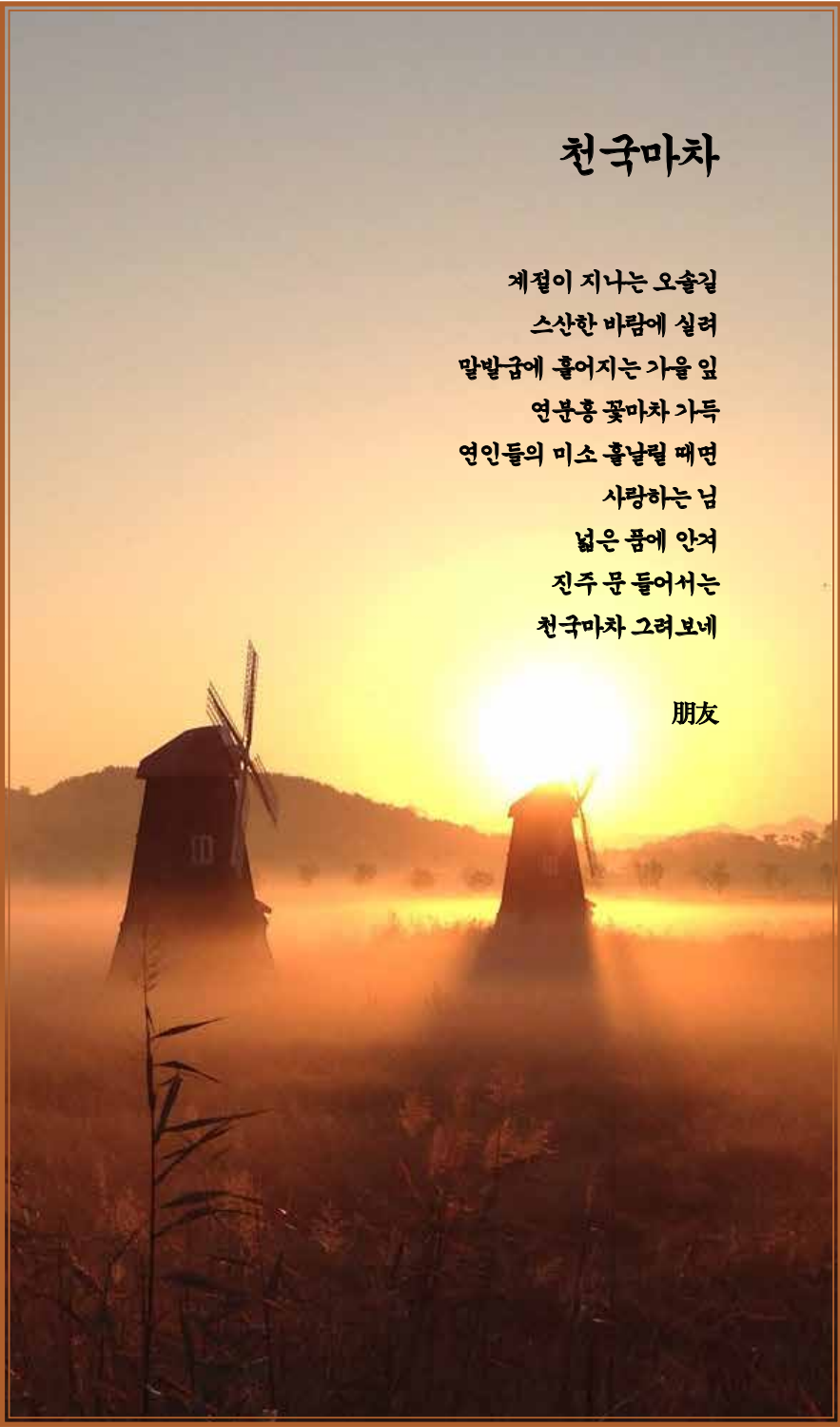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감동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스스로 만들어간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로 목표를 정했으면 매일 점검하고, 더 나은 내일의 희망 속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 환경조차 바꾸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김영숙
jesus_sook@naver.com

천국마차

계절이 지나는 오솔길
스산한 바람에 실려
말발굽에 흩어지는 가을 잎
연분홍 꽃마차 가득
연인들의 미소 흩날릴 때면
사랑하는 님
넓은 품에 안겨
진주 문 들어서는
천국마차 그려보네

朋友



::성경에세이::

참으로 기뻐던 일

여보게!
얼마 전 참으로 기뻐던 일이 있었네. 나와 의형제를 맺은 분이 있지. 나보다 연상이라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지만 친구처럼 막역한 분이라네. 그 분은 과학자인 동시에 큰 사업가야.

얼마 전에 모 나라에서 국가개발사업차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이 형님을 보자고 해서 가는 길에 한국을 경유했다네. 그래서 공항 호텔에서 장시간 얘기를 나눴지. 그때 내가 그 형님에게 주의 종으로서, 그리고 가장 친한 벗으로서 몇 가지 조언을 했는데, 그 분이 내 말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좋은 성과를 얻었다네. 사실 그 형님의 학식을 내가 어찌 따라가겠는가. 그런데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 그대로 행한 거지. 그게 나는 참 기쁘고 고마웠다네. 내가 그 형님에게 뭐라 했는지 들어볼 텐가?

“형님! 대통령과 보좌관을 만나 협상할 때 매사 여유를 가지세요. 매사 여유 있어야 자신감 넘치게 보이거든요. 자신감은 마음과 얼굴에서부터 나타나니까요. 형님! 이번 공사 수주는 기도의 열매가 될 거요.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소. 2조 공사 계약

이 앞으로 수 백조 계약이 될지 누가 알겠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사람 자랑 말고 여유를 가져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 39~41절에는 ‘5리를 가자면 10리 간다하고, 속옷을 달라면 겹옷까지 준다하고, 오른뺨을 맞는 수모와 면박을 당할 때도 여유 있게 왼뺨까지 대주는 여유를 가지라’고 하셨소. 대통령 주위 사람들이 흔들어 볼 거요. 거기에 속지 말고 웃으며 여유를 갖고 답하세요. 화내며 얼굴색 변하면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다 된밥에 코 빠트리지 말고요. 내가 형님 성격 잘 알기에 드리는 말씀이오. 여유, 여유, 경청하면서 즉답 피하시는 여유를 가지세요. 100년 된 산삼은 산삼이 사람을 고른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시오. 형님은 할 수 있어요. 또한 목적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리는 여유가 지혜란 걸 아시고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큰일은 큰 시험을 통과해야 희열에 찬 찬양과 기쁨의 춤을 춥니다. 인천공항 호텔에서 ‘이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란 말씀이 무어냐?’고 내게 물어볼 때 ‘생각 속의 말로 하는 거요.’라고 했죠. 그 때 형

님이 ‘아~ 하나님도 언어, 곧 말씀으로 천지창조 하셨지.’ 하셨죠? 바로 그거요. 형님! 말로 친구 되고 말 때문에 원수 됩니다. 다 아는 것이지만 대통령과 친구 되려면 먼저 옆에 있는 참모들을 친구로 삼는 여유를 가지세요. 또한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것이 지혜니 다 털어 놓지 마쇼. 뱀처럼 지혜롭게 기도하며 조급하지 마세요. 쫓기는 맘은 사냥감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여유를 가지면 상대 맘을 볼 수 있어서 내가 사냥꾼이 되어 골라잡을 수 있죠. 내가 사냥꾼이나, 아님 내가 사냥감이 되느냐는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더 여유롭느냐에 따라 결정될 거요. God bless you!(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형님이 나의 진실된 충언을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2조 계약을 하고 돌아와 고맙다 할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여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그게 산 믿음이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네. 모든 일에 다섯 번 생각할 것 열 번 생각하라고. 할 수 있나?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1960년대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선교 사역을 하던 헬렌 로즈비어는 어느 날 밤, 병원 건물을 접수한 반정부 게릴라 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무려 다섯 달 동안이나 처참한 지경에 있었는데,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은 성폭행이었고, 이를 거부할 때 당하는 매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캄캄했던 밤의 기억 때문에 괴로워했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은 정녕 나를 버리신 것일까?’라는 생각에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헬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헬렌,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설명 내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도 너는 내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그 날의 어두웠던 기억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켰고, 이후 다시 콩고로 돌아가 1973년까지 그 지역 사람들의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는 말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시련이 닥쳤을 때 단순히 입술로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싫어도, 이해가 안 되도, 이유를 물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시50:23).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대구예수중심교회가 해냈습니다

평화통일 대구성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대구예수중심교회 담임 한송이 목사님과 성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두 장로님들과 짧은 인터뷰를 가졌다.

기자: 평화통일 대구성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목사님의 감회가 남다르리라 믿습니다

한송이 목사: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기자: 두 장로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득 장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구예수중심교회는 이 성회를 위해 한 달 전부터 금식하며 합심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송이 목사님을 필두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예 동참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의 작품은 우리 대구예수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의 합작품입니다.

김영구 장로: 가슴이 벅차고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작년 엑스코 집회를 마치던 날 한 꿈을 꾸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대구실내체육관 제2매표소 앞에 흰옷을 입고 오셔서 저와 악수를 하시고는 “다음 집회는 여기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하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다가 총회장 목사님이 집회 전 실내체육관 답사 차 오셨을 때 말씀드렸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한송이 목사

다. 이번 평화통일 대구성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대구성회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으뜸을 꼽자면요?

한송이 목사: 우리 대구예수중심교회에 일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0여명 정도의 일꾼들과 이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젊은 일꾼을 키워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힘이고 경쟁력이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금부터 3,4대 일꾼을 길러 내년에는 더 큰 성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떻게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성회를 개최하게 되셨습니까?

한송이 목사: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야외에서 성회를 갖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악당 같은 여러 곳을 다녀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 김 장로님이 꿈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곳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총회장 목사님이 추진하고 계신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대한 장로님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김영구 장로: 주석날 서울시청광장에서



김영구 장로

개최되었던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예수중심교회에서 다시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쟁 없이 평화통일을 이뤄 주시리라 믿습니다. 멀리 대구까지 와주신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성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득 장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단에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서울성회에 이어 대구성회가 기폭제가 되어 전국적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통일을 꼭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총회장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이 심겨졌으니 머지않아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중심교단과 대구예수중심교회의 성도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과 한송이 목사님, 그리고 이 성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박성득 장로

::나도 건강할 수 있다::

노인이려면 가려 먹고 챙겨 먹자

70대 초반의 이청춘 할아버지는 얼마 전 부터 고민이 하나 생겼다. 줄곧 유지해 오던 몸무게가 무려 5kg이나 줄었고 몸무게는 조금씩 더 빠지고 있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살이 빠지면 암을 의심하라는 말이 떠올라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도 없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몸무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가 들면 신체를 구성하는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신체를 구성하는 근육이 줄면 기초열량 소모량이 줄고 필요열량도 감소한다. 이 때문에 식욕은 줄어들고 식사량도 줄어 자연스럽게 몸무게는 줄어들게 된다. 총 필요열량은 감소하지만 노화로 인해 저하된 신체 장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개별 영

양소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경우 젊은 시절에 비해 더욱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영양결핍을 막으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첫째,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노인들은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들어 근감소증이 동반되는 만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아연과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도 동물성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체내 흡수 활용도가 높으므로 고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노인들 중 동맥경화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며 육식을 피하고 채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다. 노인들의 경우 문제가 될 만큼 많은 양의 육류를 먹

기는 쉽지 않으므로 염려할 필요는 없다. 둘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야 한다. 노화와 암을 예방하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칼 물질들을 지니고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셋째, 정제된 것보다 정제되지 않은 것을 섭취해야 한다.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 등의 곡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넷째, 다이어트는 독이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들을 연구했을 때 과체중 혹은 경증 비만인 노인의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다.

인생에서 가장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할 시기가 바로 노년기이다. 100세 시대 건강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가려먹고 챙겨 먹도록 하자.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무하마드 알리와 함께 당대 최고의 복서로 알려진 조 프레이저가 “ 챔피언은 링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링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피땀으로 얼룩진 고된 훈련과 무장된 정신력과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가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노력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꿈꾸는 것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닌 물이 바위를 두드린 횟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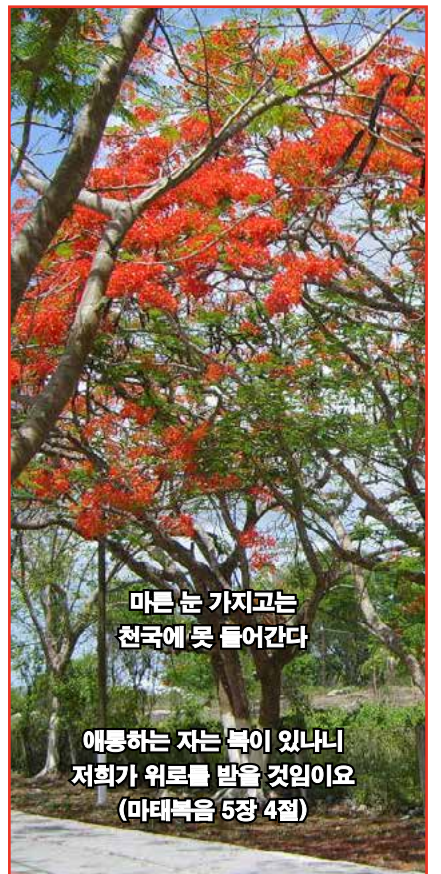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1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에디슨도, 모차르트도, 김연아도 그들의 성공을 만든 것은 1만 시간 이상의 노력과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대나무 중에서 최고로 치는 “모죽”은 씨를 뿌린 후 5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손가락만한 죽순이 돌아오고 주성장기인 4월이 되면 갑자기 하루에 80센티씩 쑥쑥 자라기 시작하면서 30미터까지 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대나무의 뿌리가 10리가 넘도록 아래로만 계속 뿌리를 내리며 내실을 다지다가 5년 후 당당하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랍니다.

남을 이기면 일등이 되고 나를 이기면 일류가 됩니다. 결국 최대의 적은 남이 아닌 나를 낙심케 하는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애용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4절)